소금 같은 존재의 특별함을 이야기 하다

20년 근속 신촌 차앤박피부과 박미혜 간호팀장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조직내 투명인간(INVISIBLE).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요즘 같은 분위기와는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조직의 소금 같은 존재로 이러한 투명인간 즉 인비저블은 존재해 왔다. 변화무쌍하지는 않지만 묵직하게 조직의 든든한 역할을 해온 박미혜 팀장이 20년동안 신촌 차앤박피부과에서 만들어 온 필모그래피다.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았다. 차앤박피부과 유니폼을 입은 '간호팀장 박미혜'을 넘어 '박미혜'라는 사람의 인생 사진을 담기 위한 외출이다. 근무시간 중 유니폼이 아닌 모습으로 서 있기란 처음이었던 그녀. 촬영은 우리동네사진관에서 진행되었다. 뜻하지 않는 촬영 포맷에 적잖이 당황했던 그녀지만 도전하였고, 신촌 차앤박피부과 가족들의 응원 속에 무사히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1. 최종 선택된 사진, 활짝 미소 짓는 그녀의 품격
2. 촬영 전 옷매무새를 다듬는 촬영팀
3. 지금은 촬영 중. 과하지 않게 동작 연출 중

미소 짓는 그녀의 아름다움

헤어 메이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한 화장이나 헤어 연출에 부담스러움을 느낄 법도 한데 힘든 기색없이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잘 이겨낸 그녀. 이제 웃기만 잘하면 된다는 담당 실장님의 주문에 사람 좋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간단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녀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은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녀였다는 것. 감성 충만한 그녀의 사전 인터뷰 답변 글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다 있었다. 최근에는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장을 구사하는 맥락에 그 감성이 오롯이 녹아 있다. 꾸밈없이 간결한 그녀의 문체다.

헤어 메이크업 포함 촬영까지 약 2시간여 소요되었다. 어색한 미소도 잠시 가장 그녀다운 미소로 포토그래퍼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차앤박피부과 신촌점 20주년 근속 기념 행사

20주년 근속 기념 행사, 원팀의 힘을 보여준 신촌 차앤박 가족들의 축하라 더욱 의미 있었다.

박미혜 팀장 MINI INTERVIEW

“위기 속 원팀의 힘을 느끼게 해 준 2020”

잘 할 수 있을까 에서 최선을 다하자

입사하고 1년은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박미혜 간호팀장. 잘 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입안이 바짝바짝 타던 기억이 한가득이다. 그렇게 일년 정도를 보내고 ‘매사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간호업무에 임했다. 그간 차앤박피부과의 브랜드 속에서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을 익히며 발전할 수 있었다.

“20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매해 거듭될수록 하루하루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다만 매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은 점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 인생의 20대, 30대를 보낸 차앤박피부과는 그녀가 가장 빛난 시절을 함께한 동반자라고 정의 내렸다.

그녀 삶 속 ‘신촌차앤박피부과’라는 인생의 이정표

“2020년 관리자로서 새 출발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을 바꾼 코로나 팬더믹 상황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대처하느라 경황이 없어 관리자로서의 압박감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변화된 일상을 빠르게 받아 들이고 병원 구성원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서툰 부분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감으로 슬기롭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료같은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구성원은 물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까지 모두 힘을 내야 하는 시기. 위기를 겪으면 강해진다는 말처럼 신촌 차앤박피부과는 원팀으로 더욱 강력하게 이겨내고 있다.

20주년 그리고 새해 소망

“잊지 않고 20주년을 챙겨 준 신촌 차앤박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신촌 병원도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해서 들썩들썩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 전에 계획했던 유럽여행도 다녀오고 싶네요.”

인터뷰를 마치면서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한가지 희망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원팀, 그리고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